

나주시 '실속없는 사업' 전면 재검토

민선5기 출범준비위 업무 파악 나서 영상테마파크·스포츠 타운 등 대상

그동안 나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민선 5기에는 경제적인 실속 여부에 따라 전면 폐지되거나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민선 5기 출범준비위원회는 6·2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으로 선출된 임성훈 당선자의 선거공약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등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출범준비위원회는 임성훈 당선자가 실물경제인인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 경제적인 실속이 없는 경우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나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민간 위탁중인 '나주 영상테마파크'의 운영 방법이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돈먹는 하마'로 불리우고 있는 '나주 영상테마파크'의 경우 매년 20여만 이상을 시설비 및 유지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갈수록 관람객들의 방문이 줄어들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만큼 운영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하수

관거BTL 사업도 손익분기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갖고 검토해볼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사가 완공된 후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비율 등이 시 재정을 압박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영산강문화 축제도 매년 4억~5억원씩 시비를 들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비용 가운데 50%가량을 이벤트 회사에 지출하고 있는 만큼 실속없는 대표적인 행사로 출범준비위원회는 판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산강문화축제를 현재 민간단체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포 '홍어축제'와 동시에 개최해 경제적인 수익창출 모델로 개발하는 등 지역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

임성훈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라는 것.

특히 '나주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378여억원의 지방재정 발행을 놓고 민주당 의원 측과 무소속의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경제적인 실속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1년 전국체전을 위해 공설운동장 공사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와 다목적 체육관을 빛을 내서 함께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었다는 것.

이 밖에 매년 20여억원을 출연하고 있는 교육진흥재단의 운영방법도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무럭무럭 자라서 돌아와라
강진군 관계자와 마량면 어업인들이 지난 22일 마량항 앞바다에서 감성돔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증진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감성돔 35만마리가 방류됐다.

강진군 관계자와 마량면 어업인들이 지난 22일 마량항 앞바다에서 감성돔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증진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감성돔 35만마리가 방류됐다.
(강진군 제공)

담양군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올해까지 344농가로 늘려

담양군이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담양군은 올해 344농가, 오는 2012년까지 500농가가 무항생제인증 이상 친환경인증 획득을 목표로 세웠다. 담양군은 6월 현재 유기축산물 1

농가와 무항생제 축산물 216 농가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가 전남도 22개 시군 중 2번째로 많다.
가축별로 살펴보면 ▲한우 183 농가 ▲젓소 14 농가 ▲돼지 2 농가 ▲육계 5 농가 ▲산란 11 농가 ▲오리 1 농가 등 모두 217 농가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담양군이 타 시·군에 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가 많은 이유는 지난해 2008년부터 꾸준히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축산농가 의식개선 교육을 비롯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책임담당제를 통한 지도·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장흥에 단백질 생산 연구원 개원

지렁이 이용 성장호르몬 추출

기능성 사료·식품·약품 생산

장흥군 장평면에 지렁이를 이용해 기능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주)에코젠크래프트는 지난해 11월 전남도·장흥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단백질 생산연구원'을 최근 개원했다.〈사진〉

'단백질 생산연구원'은 연구동 1동과 지렁이 생산동 3동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의 대표 동물인 지렁이의 형질 전환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단백질의 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에코젠크래프트는 광어나 넙치 등의 성장호르몬 활성물질을 추출해 지렁이에 주입하고 나서 번식시킨 지렁이로부터 얻은 액상 추출물을 어류의 기능성 사료제로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현재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지렁이 액상 추출물 농도에 따른 광어·넙치 등 물고기와 닭·오리 등에 대한 성장 테스트를 하고 있다. 물고기는 8월까지, 닭·오리는 올 연말까지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에코젠크래프트 단백질생산연구원은 이번 성장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성장호르몬 추출액을 농어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단백질생산연구원은 앞으로 지렁이의 형질전환 특성을 활용한 어류 기능성 사료 개발과 기능성 식품, 생명의약품 등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단백질생산연구원 개원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마련하고 자연친화적인 기업 육성 등 장흥군이 친환경 지역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사료작물 국산종자 4종 생산 성공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대체효과 100억원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조상신)가 국내산 4개 축산사료작물 신품종의 시범생산에 성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2일 강진군 작천면 전남 축산시험장 이전부지에서 국내개발 종자생산 현

장연회를 가졌다. 그동안 축산 사료작물 종자는 100% 수입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발된 종자로 전량 대체될 경우 100억원의 농가지출 감소가 기대된다.

전남 축산기술연구소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이탈리아라 이그라스(IRG) 신품종 4종을 지난해

9월 첫 파종해 재배에 성공했다.

수확한 사료는 속이 알차고 높은 당분함량으로 가축의 기호성과 영양성·생산성 등에서 수입종자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 축산기술연구소는 시험 성공한 사료용 종자를 2014년까지 100% 보급해 소사료 자급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화순 7개 업체 31억원 지원

화순지역 7개 업체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3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화순군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재제)이 최근 선정한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업체 18곳 가운데 화순지역 업체 7곳이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화순테마랜드 등 7개 업체로 총 융자금 31억2000만원 규모다. 광해관리공단은 자체 임여금을 적극 활용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융자금 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화순지역 한국인스팜㈜등 7개 업체에 대체 산업 융자금 30억원이 지원됐다.

한국광해공단 김창호 석탄지역진흥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실시하는 대체산업융자금 제도에 대해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SINCE 1982 www.kije.com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보청기
 • 최신형 보청기
 • 보청기 렌탈 서비스
 • 보청기 수리 서비스
 • 보청기 렌탈 서비스
 • 보청기 렌탈 서비스
 • 보청기 렌탈 서비스
 • 보청기 렌탈 서비스